

바로가 꿈을 꾸다 창세기 41:1-16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웅,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계획을 할찌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열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축은 요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요셉 주변에는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 시위대장, 떡 말은 관원장, 술 말은 관원장, 애굽의 왕 바로도 있었지만,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의로움과 진실, 정직은 때로는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진실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공식이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은 결국 복을 가져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 공식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축복이 임하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요셉에게는 축복의 서곡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전옥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한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부심은 교만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별볼일 없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첫번째 은혜는, 요셉이 있는 곳에 들어온 떡 말은 관원장과 술 말은 관원장이 곧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나 꿈을 꾸기에, 이것은 평범한 사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까지도 이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꾀족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작업을 하십니다. 술 말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나신지 2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와 꿈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는 ‘하나님은 바로를 중심으로 역사를 만드시지 않고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로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오라고 합니다. 또한 꿈을 해석하라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바로는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족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술 말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같은 사람이 술 말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고마워 했을지 모르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잊혀진 2년의 세월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을 누가 기억해 주지 않은 채 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요셉의 경우는 면회를 올 가족 조차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홀로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축복의 때는 어느날 문득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 속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는 꿈을 꾸고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꿈 속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와 꿈은 마치 17세 소년 시기의 요셉이 꾀 꿈처럼, 해석하기 어렵고 독특한 꿈이었습니다. 술 말은 관원장의 꿈도 그랬습니다. 바로의 꿈은, 살진 양소가 파리한 양소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가 놀라서 꿈에서 깬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는 또 꿈을 꾀니다. 이번에는 풍성한 이삭이 세약하고 흉악한 이삭에게 먹히는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에는 반드시 미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꿈을 꾸고 번민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모든 예언하는 사람과 술객들을 불러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바로의 꿈 속까지 들어가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하여 풍년을 내리기도 하시고, 흉년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축구시합을 하러 갈 때, “하나님, 오늘 축구시합을 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하나님, 비가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저는 통일은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정치나, 군사력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이 미국 때문이었습니까?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모함을 받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자가를 지고, 고독하고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편에서 계시다는 사실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

요셉이 위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는 매우 편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 뜻으로 보는 역사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가 강합니까 바로가 강합니까? 당연히 바로가 강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여호수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강한 골리앗이 아니라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 때문에, 그를 들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의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어찌 귀신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점쟁이에게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 귀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미혹되어 점쟁이를 만나도, 그들에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나를 떠나시오”라는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

9~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말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을 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꾀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2년만에 술 말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합니다. 하나님은 술 말은 관원장을 2년 후에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큰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큰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도록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술 말은 관원장은 안드레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드는 데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급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 길을 잃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찾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왕 앞에 선 요셉

14~1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영을 깎고 그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드디어 바로 왕이 요셉을 찾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1백년이 지나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넘어서십시오. 사람의 뜻과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바로 왕의 꿈 속에 들어가서 꿈도 꾸게 하시고, 일도 만드시고, 기억나지 않는 사람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풍년을 내리게도 하시고, 흉년을 내리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수영도 깎고, 옷도 새로 입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광경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너는 꿈을 해석한다 하더라'

이 때 요셉의 대답을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유명하면 큰일납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소문나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나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직과 의로움, 꿈, 믿음을 포기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